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루계 제2151호】

주체 100
(2011). 12
24
토요일
음력 11. 30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혁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뺏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출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가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옮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의 대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봉파와 민족최대의 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응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여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파로로 하여 렐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협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출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조성된 정세는 준엄하지만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 선 로 동 당
조 선 로 동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비분에 떠는 삼천리강도, 하늘땅에 차넘치는 민족의 대슬픔

각 계 층 인 민 들 가 장 비 통 하 게 애 도



그이는 가시지 않으셨다

박 철

어찌 밀을수 있으랴
눈물에 젖은 방송원의 저 말을
우리 장군님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 비보를

아니다 아니다
왈칵 비통한 눈물은 비오듯
쏟아져도
심장은 굳이 부정하거니
하늘이 무너져내렸다는 그
말도

내 밀을수 있겠지만
이 비보만은 아니다

어떻게 밀을수 있으랴
그제만도 함남도내 공장들을
돌아보시고
어제 만도 평양의 하나음악
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여
기쁨에 환하게 피여올리시던
미소

그 뜨거운 심장이 고동 멈추
았다고

이 시각도 이 순간도 귀기울
이면
저 철길 한풀에서
장군님 탄신 렐차의 기적
소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장군님
발걸음소리가
온은 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은데...

아버지 수령님을 잊고
슬픔에 주저앉았던 우리 인민
에게
자신의 숨결과 심장을 다
주어
두번다시 살아나게 하여주신
삶의 은인 삶의 어버이이신
그이

섰던
그 야전 복 그대로 입으
시고
태양처럼 빛나시는 장군님
영상이여

우리 인민 우리 겨레는
장군님의 그 영상 천세만세
모시고

그이의 뜻 받들어가리라

김정은동지의 손길따라

인민은 강성대국의 대문 활짝

열고

겨레는 통일의 새 아침 펼치

리라

오, 가시지 않으셨다 그이는!

하늘이 낸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 하늘의 태양으로 길이

빛나시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장군님과 함께

리 송 일

땅을 치고 가슴 허비며
피눈물을 쏟고 쏟는 인민이여
누가 그러던가
어버이 장군님
우리 결을 떠나셨다고

저 하늘의 태양도 떨어진다
더냐
이 땅, 삼천리 하늘에 빛을
주시던
우리 장군님은 태양이신데
그이가 우리결을 떠나시다니

안될 말이다
머리 들어 하늘을 보라
삼천리의 우리 하늘
누가 지켜주었더냐
오늘도 그이를 믿어
저 하늘은 저리도 맑고 푸
른데

우에
통일조국이 우뚝 솟으리라

아, 인민을 위한 겨레를 위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
우리 겨레 생애엔
시작만 있고 끝은 없거니

가리라 세월의 한끌까지

김 태 봉

가슴을 치며 터뜨리는
이 눈물 피로 쏟은들
쓰리고쓰린 슬픔이 가셔질수
있으랴

숨막히는 통분함 누를수
있으랴

아, 장군님 장군님

우리결을 떠나시다니

이제는 뼈울수 없는 어버이
뵈울수 없으니 더더욱 그리운
어버이

절통하다 비통하다

믿지 말아야 할 뼈저린 아픔

의 소식을

굳이 믿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우리가

잃었는가

얼마나 커다란 상실의 고통이

우리의 가슴 갈가리 찢는가

그 고통 안고 일어서기엔

비애의 하늘이여

너는 너무도 무거운것이구나

한생의 단 하루도 내리신적
없고

언제 한번 종착역이란 있어

본적 없는

장군님의 야전렬차

아, 그 야전렬차가 달린 그

길이

다시는 다시는 오시지 못하는

길이였단 말인가

그 이 위 업은 세 세 년년
빛나리

하늘의 태양이 불멸하듯

불멸할 은혜로운 빛발아래

우리 겨레 무궁세월 살아가

리라

영원히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그이 환한 미소를 짓고 맞으
시였다면

굳이 믿어야 한다면
장군님 떠나셨다는 비보를

믿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세월속에

장군님 영생하신다는 그 진리

만 믿으리

늘 말씀하시던 그이 아니신가

아, 가슴치누나

인민이 혁명일화로 가슴에

새긴

그 쪽잠때문에

그 웨기밥때문에

장군님 가신것 아닌가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

하게

인민이 발편잠에 떨 때
길가에서 쪽잠에 드시고
인민이 밥상을 마주할 때
웨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던
불같은 초강도의 그 낫파 밤
빨찌 산식 강행군의 날파 달

그런 날 그런 헌신으로
인민이 기쁨속에 누리는
선군의 만복 꽂혀주시고
겨레가 환희속에 맞이한
6.15의 벅찬 통일시대도
장쾌하게 열어주지 않으셨던가

그 심혈 그 로고를 생각하며
집장이 뿐어내는 피의 웨침
우리 장군님 천만고생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한 심장
천이면 뭘 하라
만이면 뭘 하라

아, 어버이 장군님께
우리 냄다 바친 그 충정
조국과 민족의 진두에 높이
서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께 바치고 또 바치려니

가슴터지는 슬픔과 비분우에
솟구치는 피눈물의 맹세
천만심장 하나되어
장군님유훈 끝까지 지키리라
선군조선의 희망이고 미래
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하늘처럼
발들리라!

열마나 열마나 좋았으랴

강성대국의 그 찬란한 세월의

하루만이라도

그이 기쁨속에 계시였다만

그처럼 바라신 조국통일의

아침도

굳세게 가리라

김정은대장동지를 따라

장군님 리상하신 강성대국

에로

장군님 바라신 조국통일에로

오,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

시고

세월의 한끌까지 우리는 가

리라

천 만 심장

다 바 처

리 철 준

손꼽아 그이만을 기다리는

인민이 있는데

오직 기쁨만을 드릴 일념에

삶을 불태우는 인민이 있는데

영원 가시였더니 오실수 없다니

렬차에서 지금 쉬고계시리

인민을 찾아 떠난 그 길에서

잠시 눈을 불이시리

쪽잠이 제일가는 단잠이라고

선군의길, 승리의길

오늘은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탄생 94돐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겨레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눈보라 날리는 현지지도의 초강도 강행 군길에서 순직하시였다.

12월 24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ultimo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이 가까울수록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고동친 것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길 걸으시는 장군님께서 겹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부시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진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대장께서는 장군님께 기쁨드릴 가장 성대한 경공연무대를 품들여 마련하고계시였다.

그런데 군대와 인민의 축원의 인사도 받으시지 못하고, 뜻깊은 날의 성대한 경축공연도 보시지 못하고 이렇게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실줄 어찌 알았으랴.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숙녀사를 애타개 그리시였다.

2년 전 2월의 어느날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보시던 혁사의 땅 회령을 찾으셨을 때에도 장군님께서는 오늘 회령시에 와서 어머님의 동상을 보니 어머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억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근로자들

세계에 언제나 자리잡고계신 김정숙녀사를 생각할 때면 너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으시고 백두전장을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삼대 베듯 물어뜯히시던 백두의 너장군의 모습이 우렁이 떠오른다.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여 수령님의 건국유업과 조국통일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던 너사의 따뜻한 미소가 안겨온다.

백두산 시절 어리신 자세분께 불타는 조국에 와 백두산총대의 애국의 냄새를 맴아 주신분도 김정숙녀사 이시였다.

그 혁사의 12월 24일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파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지난 20세기 마지막 90년에는 민족의 대국상과 함께 계승되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봉쇄와 고립압살책 등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

기에 처하였던 엄혹한 시기였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때 삶이나 죽음이거나, 자주적인 민이 되느냐,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갈릴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의 결사전에 결연히 나서시였다.

폐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새해의 첫아침 다크솔초소를 찾으셨던 그 결음으로 초도와 오성산, 최전방중의 전방인 판문점에까지 가시여 초소의 병사들에게 제국주의의 노

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총대를 억세게 털어주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을 북돋아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시고 혁명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며 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새 혁사도 펼쳐주시였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자주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고 탁월한 혁도자인 김정은대장의 위도를 가장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혁도의 위인이다.

혁사의 12월 24일과 더불어 선군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민족자주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고 탁월한 혁도자인 김정은대장의 위도를 가장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혁도의 위인이다.

장군님 가시는 선군의 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끼지는 것만 같다. 어찌 우리 겨레에게 이다지도 절통하고 비통한 날이 있을수 있다 말인가.

강철도 녹일 불같은 정력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청천벽력같이 세상을 떠나실줄 그 누가 알았으랴.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우리 조국은 오늘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되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정녕 12월 24일은 우리 겨레에게 종래의 귀중함과 선군위업의 정당성, 그 확고한 승리를 깨우쳐주는 잊지 못할 혁사의 날이다.

폐눈물의 한생의 뜻과 헌신의 رو고가 어려있는 선군의 길만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강성번영에 나가는 길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지금 폐눈물이 흐르는 12월의 언덕에서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겨례의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온 나라 인민이 받든는 또 한분의 위인의 계시여 민족의 밝은 래일을 막관하는 우리 겨례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대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아들여 오신 장군형의 위인이다.

혁사의 12월 24일과 더불어 선군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그이는 위대한 대성인, 세계정치의 원로, 회세의 혁장이시였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외세도 감히 진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기 위해 강성대국건설의 옹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나라에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신 장군님의 그

배의 힘과 용기가 되여 오늘의 비분을 이겨내게 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대장께서는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계시며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을 조국과 인민을 강성번영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사상과 령도력에서나 풍모에서나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장군님과 꼭같으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대장을 모시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생전의 네원과 유홍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과 탁판이 사람들에게 가슴마다에서 용암마냥 끓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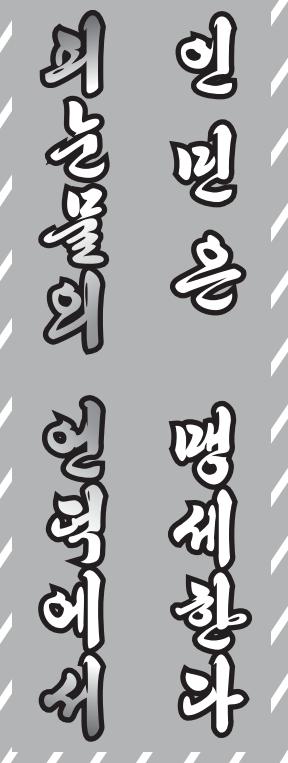
령도자를 잊은 비감을 이겨내며 산악같이 일떠서고 있는 조선의 실상에 대해 로씨야의 아파르-파스통신은 수많은 인민들과 군인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나라의 령도자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을 염두하고 맹세하였다고 전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대장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애국의 위업을 만들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성업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억세게 가다듬으며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더욱 거세하게 지펴올리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이다.

폐눈물의 바다에서 군대와 인민은 엄숙히 맹세다지고있다.

한번밖에 안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김충길



업적을 사람들은 정녕 잊지 못한다.

그이를 잊은 크나큰 슬픔 형언할길 없지만 폐눈물을 삼키며 억척같이 일떠서고 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있다. 그이의 솔직한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라 는것을.